



우룡산 우룡정 오르는 길은 해마다 봄이 되면 벚꽃터널을 이룬다.



③ 평화공원~우룡정~장고개~문현동

남구 탐방 명품 건강 길 답사 세 번째 구간은, 평화공원~조각공원~박물관~유엔 기념 공원~부산 문화회관~우룡산~장고개~수영로(지하인도)를 지나는 구간으로, 휴식 시간 포함 약 2시간이 소요된다.

도심속 생태공원으로 사랑받아

동명정보 대학교 맞은편 대연3동에 자리한 평화공원은, 2005년 APEC정상회의를 기념하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엔기념공원의 존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수경시설 (13종, 1,600점), 수목 (33,620그루), 초화 (33,140포기)와 중앙 분수, 생태 연못, 생태 숲, 잔디 광장 등이 있어 도심 속의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흰빛과 보랏빛의 꽃을 소박하게 매달고 있는 우리나라꽃 무궁화 단지를 먼저 둘러보았다. 파스란 늦여름 햇살 속에 바닷분수가 물을 뿜으며 무지개를 만들고, 천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내 마음까지 명달아 동심으로 향한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순수가 눈부시게 푸른 하늘에서 왕크하는 듯하다. 공원 들레에 타원형으로 조성되어 있는 워킹트랙은 구민들의

건강 다지기에 일조를 톡톡히 하고 있다. 폭신한 우레탄 트랙을 한 바퀴 돌며 발걸음에 탄력을 붙여 걷기 시작했다.

자유·평화·통일 상징 조각품

공원 안쪽에 있는 등나무 파고다를 지나면 곧바로 조각공원이다. 평화공원과 맞닿아 있는 조각공원에는 6·25 참전 21개국 조각가들의 작품과 우리나라 조각가의 작품 등 34점이 있다. 작품들은 자유 평화 통일을 주제로 제작 되었는데, 모든 작품에는 상세한 설명이 적혀있어 이해하기 쉽다. 작품을 감상하며 걷다보면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셋분이 나오는데 바로 박물관 후문이다.

우리에게 부산시립박물관으로 더 알려진 부산박물관은 1978년에 개관 하였으니 어느새 서른살이 넘었다. 2개의 전시관을 비롯 복천 박물관, 부산 근대 역사관, 동삼동 패총 전시관, 임시수도기념관 등 나뉘는 특색을 가지고 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특히,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박물관 교육과, 부산 지역 및 부산 문화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 등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유엔기념공원으

건강길을 걷다

로 발걸음 옮겼다.

세계11개국 전사자 영면

동양식의 정감어린 정문이 인상적인,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은, 유엔에서 지정된 세계 유일의 성지다. 공식 명칭이 재한유엔기념공원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인 이곳에는 11개국의 전사자 2,300명이 안장되어 있다. 면적 14만7,000㎡에 1,1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묘지라기보다 작은 동산의 아름다움을 준다. 조선 향나무, 배롱나무 등의 마중을 받으며 선열들에게 목례를 마치고 갈대 가 만발한 연못 쪽으로 발걸음 옮겼다. 연못과 부들꽃이 만개한 생태 연못에는 오리까지 몇 마리 놀고 있다. 거위며 꿩도 있다는 관리인의 설명에, 엄숙하고 경직된 이미지에서 밝고 친근한 추모와 기념의 공간 이미지로 전환되었음을 새삼 실감했다. 공원을 나와 계단을 올라 지하차도 위로 걸어 문화회관으로 발걸음 옮겼다.

국제 문화도시를 꿈꾸는 부산의 대표적인 종합 문화예술 공간인 문화회관은 지난 1988년 개관했다. 4만4,000㎡의 부지위에 대·중·소극장 등의 공연시설과 전시실 등 여러 부속시설을 두루 갖춘 문화 예술 공간이다. 특히 건물의 건축 양식부터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특성을 살려, 대강당이 본채로, 중, 소강당이 사랑채로 배치 된 점이 돋보인다.

관객 공간인 야외의 특설 무대는 600여명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데, 열린 마음 열린 시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의 문화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상설공연이 열린다는 설명에 바쁜 걸음이 자꾸만 주춤거렸다. 새삼 UN공원, 박물관, 조각 공원, 평화공원 등이 하나의 문화벨트로 조성되어, 보고 즐길 거리들 충분히 제공 받고 있는 뿌듯함이 기분 좋게 전해왔다.

바쁜 일정 탓에 발걸음 재촉하여 우룡산으로 향했다. 우룡산으로 가는 길은 부산 공고를 지나야한다. 우룡산 서면 남구가 한눈에

부산공고는 1924년에 부산공업 직업보습학교로 설립되어, 2008년 부산 교육청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교육의 활성화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된 역사 깊은 교육기관이다. 부산공고를 지나고 동성하이타운 가는 길을 따라 걷다가 왼쪽으로 돌아 대연중학교 방향으로 걷는다. 약 500m쯤 걸어 대연중학교 정문을 지나 직진하

다보면 천제등4길이라는 팻말이 나온다. 그 곳 방향으로 시멘트 포장 오르막길을 300m넘짓 오르면 우룡산 평화공원이라는 비석이 나타난다.

우룡정으로 오르는 벚꽃길은 명품 중의 명품길이다. 길 양쪽에서 올라온 아름드리 벚나무의 가지들이 터널을 이뤄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늘을 드리운다. 기세좋게 올라대

는 매미의 합창이 귀가 따갑을 지경이다. 다정스레 팔장 낀 연인들도 보이고 동네 어르신들이 나무 의자에 한가로운 앉아 있다.

우룡정 철계단을 조심스레 올라 2층에서 내려다본 남구는 평화롭기 그지없다. 멀리 광안대교와 남실대는 파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지만 하고 잠만 부두가 바로 눈 아래다.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맑은 공기를 가슴 가득 채운 다음 내려갈 계단을

했다. 우룡정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왔던 곳과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된다.

약 900m는 우룡정 오르는 길처럼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준다. 곧바로 오른쪽은 주택가, 왼쪽은 성지공고 뒷산을 끼고 걷게 된다. 그리고 신원초등학교 뒷길로 이어진다.

구수한 고풍에 소주 한잔

골목 끝까지 나가면 남구종합복지관이라는 팻말이 나타난다. 그 팻말을 따라 좌측으로 돌아 걷다보면 오른쪽으로 군인들이 보초를 서있는 7376부대 (포부대)가 보인다. 이곳 포부대는 일제시대 때 커다란 박격포가 있었던 자리다. 맞은편에, 우암동 공동묘지를 엮어고 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우암동 소공원을 만든다는 한수막이 크게 걸려있다.

복화 그란 빌라를 끼고 오른쪽으로 내려온다. 지장사 라는 암자를 지나고 약 50m 걷다보면 오른쪽 언덕위로 우암 2동 유실수 단지가 있다. 그리고 장고개다. 옛날 우암동 주민들은 이 고개를 넘어 시장을 다녔단다. 지금이야 도로도 좋아지고 교통도 편리해졌지만 옛날 주민들은 지게나 리어카를 끌고 구불구불 머나먼 고개길을 넘나들었을 생각에 문득 코골이 정해온다. 소방도로를 끼고 걷다보면 어느새 문현4동 주민 센터를 지난다.

40년을 자랑하는 그 유명한 문현동 급장 골목이다. 부산 시민이라면 이곳에서 고풍을 한번쯤은 맛보았을 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않은가. 골짜구이에 가볍게 소주 한잔은 목을 축인 뒤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문현로터리 지하인도 (8-332)로 걸어 해인병원 앞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해인병원을 왼편으로 두고 문현1동 꿈나무3길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조을홍 기자

<다음호에 계속>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자녀 학습·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학습지를 통해 맡겨 공부할 수 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구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시행하며 해당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구는 우선 지역 선택형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아동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차액은 본인부담.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으로는 근

로자 근로의욕 향상 프로그램과 1·3세대 통합교육 'Old&New' 프로그램, 급성기 심혈관질환 치료 후 집중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프로그램 별로 월 10만원~16만원까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607-4314

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지역 선택형 바우처 사업

사업명	접수인원	서비스지원액	서비스기간	서비스대상	신청서류	제공기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450명	월 20,000원 ~27,000원	10개월	건강보험료납부금액 기준 이하 만2세~만6세 이하	건강보험증 신분증(신청인부모) 납부영수증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한우리열린교육, 대교는높이교원발간원, 영교구문학습, 한솔교육, 장원교육
아동건강서비스	331명	월 40,000원	12개월	만7세~만12세 중 비만자수 20% 이상	6개월 이내 의료기관 확인가능 서류(검진결과지 또는 답안 및 보건조사 확인서)	플레이터면역센터 신하혈력단국민체력센터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사업명/접수가능인원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 프로그램	1·3세대 통합교육 'Old & New' 프로그램	급성기 심혈관질환 치료 후 집중관리 서비스
지원액/월	• 월 130,000원 / 7명	• 월 160,000원 / 51명	• 월 100,000원 / 1명
서비스 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이하의 근로자-제3종 분야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종사하고 있고, 만18세 이상의 자	• 부산광역시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중 서비스 이용 희망기관,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포함-15~20명 단위의 단체 이용, 단, 바우처를 하나만 신청할 시 2명까지 이용 가능	• 전국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심혈관중재시술을 받은 자 3개월 이내, 심혈관수술을 받은 자 3개월 이내인 자
서비스 기간	• 6개월	• 연 2회 (6개월마다 한번씩)	• 6개월
서비스 내용	• 정서지원프로그램-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교육 (각종 심리검토검사 포함) • 건강검진 프로그램-근·골격계통증 관리, 체력기능강화, 기초체력증진 프로그램	• 공공기관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거 서비스 실시-체력프로그램 제공 (자연체력+공예체험+전통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 (예: 절교육·인성교육·한문교육)-출장프로그램 (체력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중 선택 또는 혼합 제공)	• 기초교육: 월 1회, 회당 2시간 • 검진: 6개월 2회, 회당 2시간 • 유지교육: 월 1회, 회당 2시간 30분 • 방문관리: 월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제공기관	• 구명종합복지관, 금정구종합복지관, 낙동종합복지관, 화정종합복지관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금정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서구시니어클럽	• 동아대학교 임상시험센터
접수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제3종 종사 및 근무기간 3개월 이상 증명 가능한 서류)	• 신청일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대표자 (교장, 교사 (담당, 부담당)) • 기관의 대표자 및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	• 진단서 및 수술 (시술) 확인서
본 인 부 담	• 월 200천원	• 정부지원 차액	• 정부지원 차액

■유망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침구류 생산 동종업계 최고

커튼 버티칼 전문업체 개나리ENG 출범
남구 주민 대상 시중가 50% 할인 판매

우암1동 개나리상사

지난 1988년 창립한 우암1동 개나리상사(대표 김병식)는 이불과 베개 등 침구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20여 년 동안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 생산에 주력해온 결과 개나리상사는 부산의 동종업계 중 1·2위를 다투며 크게 성장했다. 사업 다각화를 모색해 온 개나리상사는 최근 '개나리ENG' 호를 출범시키고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선장에는 김병식 대표의 아들 김민규 (29)씨가 맡았다. 이 회사는 커튼과 버티칼, 롤스크린, 로만셰이드, 우드브라인드 등을 주문 생산하는 업체로 주문 즉시 제품을 만들어 다음날 바로 설치해주는 신속한 체계를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최신사업을 하는 디자인과 우수한 제품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개나리ENG 김민규 대표가 자사제품을 설명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대구에서 직거래로 좋은 원단을 구입하고 있는 것도 이 회사의 장점 중 하나.

무엇보다 이 회사의 장점은 철저한 A/S에 있다. 조금의 하자가 발생해도 즉시 달려가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개나리ENG는 창업을 기념해 남구에 주소를 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중가의 50%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민규 대표는 "최고 품질의 침구류를 생산해온 개나리 상사의 명성을 이어 생활인테리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 634-5757, www.wabind.com
조상영 기자

이기대해안산책로

‘걷고 싶은 길’ 베스트 5 선정



이기대해안산책로가 문화·예술인들이 추천하는 '걷고 싶은 길' 베스트 5에 선정됐다.

이기대~오륙도에 이르는 산책로가 부산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추천하는 '걷고 싶은 길' 베스트 5에 선정됐다. 국제신문이 최근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추천 받은 5개 코스의 '걷고 싶은 길'에 이기대해안산책로가 선암사~성지곡 숲길과 절영로~태종대 길 등과 함께 선정됐다.

부산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독립영화 감독 김희진 (40)씨는 이기대~오륙도에 이르는 길을 명품길로 추천했다.

10년 전 이기대 주변에서 살았다는 김 감독은 광안대교와 해운대 누리마루 등을 한눈에 바라보며 걸을 수 있고 2

km 넘게 펼쳐진 기기묘묘한 갯바위와 장관이라며 이기대를 베스트 걷고 싶은 길로 선정했다. 동생말~여울마당~농바위~오륙도로 이어지는 4.7km구간의 이기대해안산책로는 맨발로 걸어도 푸근한 흙길과 나무 데크로 이어져 명품 산책로로 명성이 높다. 주말이면 타지방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1천만 관객을 돌파한 '해운대'를 통해 이기대가 알려지면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기대해안산책로는 전국 10대 트레킹 코스로도 선정됐다.